


책 과 사 람 과 함 께 한
연 대 B O O K S 이 야 기

한 뱀

성장과 연대



G R O W T H
A N D
S O L I D A R I T Y

책 과 사 랫 과 함 께 한 연 대 B O O K s 이 야 기

한
뺨
성장과 연대

“ 우리는 누구나 자고 싶은 새벽을 깨우며 성장합니다 ”

연대BOOKs

연대BOOKs는

사람과 자원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독서/토론/공유/ 연대하는 모임입니다.

‘연대BOOKs’

사람과 자원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뜻을 함께하는 멤버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나누고 성장하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힘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작은 책자로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연대BOOKs 멤버
댄스현경, 열정계명, 진정명희, 미노선영, 비전인환, 멀티현기, 도전태준, 감사은경,
믿음은진, 바라보리, 불꽃민선, 산책은정, 안녕민정, 여운민지, 춘기은하, 하이예나,
함께누리, 토리선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장 실무자를 위해 공유네트워크 "이:룸(E:Room)"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
중부재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문지기 든돌정선



C O N T E N T S

책 과 사 람 과 함 께 한 연 대 B O O K s 이 야 기

2021연대BOOKs 이야기



잘하고 있어!	하이예나(강예나)	06
사람을 찾아 다니는 여행	토리선아(구선아)	07
함께 함이 좋아서	멀티현기(권현기)	08
2021년의 탁월한 선택!내 안의 파랑새 연대BOOKs	감사은경(김은경)	09
연대BOOKs가 내게 던져 준 Message	도전태준(김태준)	10

매력덩어리 연대BOOKs	춘기은하(박은하)	12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줘서 고마워♡	진정명희(어명희)	14
다름이 모인 하나	미노선영(엄선영)	15
연대BOOKs를 통한 연대의 힘	함께누리(이누리)	16
연대BOOKs 이야기	비전인환(정인환)	17
내 편 만들기	댄스현경(정현경)	18
움직이는 동력같은 연대BOOKs	열정계명(최계명)	20
연대BOOKs를 통해 달라진 나	바라보리(한보리)	22
[세계미래보고서 2021-포스트코로나특별판]을 읽고	믿음은진(차은진)	24
2021년 연대BOOKs와 함께한 우리들의 한마디		25

한땀 성장과 연대

잘하고 있어!

01 하이에나 (강예나)

2020년, 연대BOOKs와 함께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다면
2021년은 연대BOOKs와 함께 방향을 튼 나의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한 해였다.

작년 연대북스를 통해 사회복지, 연대, 사람, 심리상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고민했고
올해 잠시 사회복지현장과 거리를 두고 사람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다.
개인의 삶에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대BOOKs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본질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올해 첫 도서였던 세계미래보고서 2021을 읽고 난 후 온라인 교육품 중 하나인 코스라(coursera)에 등록해
심리학을 살짝 맛볼 수 있었고, 동시에 앞으로 4차 혁명의 시대와 가까워지며 사회복지와 심리상담 분야에 있을
나는 과연 어떠한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다른 책 세상의 바꾸는 캠페이너의 경우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내가 사회복지(또는 심리상담)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은
개인의 삶에서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나에게 울림이 되는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책은 타인의 고통이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타인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그 고통 한 부분의 우리, 나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은지 인지하고 공감으로
나아가자는 이 책이 나에게 준 메시지는 사람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나에게 고민거리를 안겨다 주었다.

내가 누구까지 공감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타인을 돌아보려면 내 안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복지사로든, 심리상담사로든, 그냥 있는 그대로 ‘강예나’라는 사람이든 말이다.

책을 통해 얻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찾았다면 거짓말이겠다.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물음표이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이른 아침 좋은 사람들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알아가야 할
것이 많은 나이지만, 연대북스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다독여준다. 잘하고 있어!

사람을 찾아다니는 여행

토리선아 (구선아) 02

가을날 낙엽이 떨어진 숲길을 걸으며 땅 내음 가득히 여기저기 휘날리는 황금빛 낙엽들이 있다.
내 발바닥은 이름 모를 풀들과 이파리들을 밟으면서 겨울맞이에 분주한 땅속 세계를 그려본다.
멀리서 불어오는 가을바람 내음은 나의 온몸을 휘감고 숨결까지 한 바퀴 돌아서 간다.
책 한 권 들고 미친 듯이 쏘다니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공기와 삶의 내음들 그리고 함께라는 사람의 내음들로
미소 짓게 만드는 곳이 연대BOOKs~다.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중 아침 곤한 잠 깨기 어려운 6시 30분이다.
정말 모일 수 있을까 가우뚱하고 시작한 인터넷 ZOOM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 아쉬울 정도로 늘 컴퓨터 화면이
딱 차도록 채워졌다. 이제 우리는 "이기 무~썬 일이~고~!?"를 외친다. 매번 모임이 자꾸자꾸 신나는 이야기들로
꾸러지고 알뜰한 강사님들과 함께 짹짹 채워주는 주제 강의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와 사람 관계에
탄력을 통통 튕겨준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는 연대북원(연대BOOKs 멤버)들의 업무를 서로 지지하고
개발하는 우리는 연대연대BOOKs~다.

코로나로 마스크가 일상화 되었다. 대중교통과 업무 현장에서 마스크는 필수품이다.
나는 마스크 속의 친구 얼굴도 못 알아본다. 이른 아침 마스크 없이 맨 얼굴로 만난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가 이제는 약 두 해 동안에 가장 많이 맨얼굴로 만난 사이가 되었다.
좁 속의 따뜻한 맨얼굴~동지들, 우리는 연대BOOKs~다.

다름 속에서 즐거움 푹푹하게 담아내는 연대BOOKS.
산과 자연을 찾는 여행을 주로 했던 일상은 연대BOOKS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여행이 된다.
렛츠~GO~연대BOOKS~
구독! 댓글!
좋아요!
큐!!!

함께 함이 좋아서

03 멀티 현기 (권 현 기)

2019년 1월부터 운영지원과 업무를 담당하며 처음 접해 보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어찌 시작을 해야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원개발 업무에 대해 정보가 많지 않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막막하던 시간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던 열정계명님의 도움을 받고 연대 Book's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참여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읽은 책을 나누고 관련 강사의 강의를 듣는 동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책을 완독하고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아침에 일어나 씻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거나 부스스한 모습으로 참여 하더라도 흠이 되지않는 우리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캠페이너는 나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 책이었고, 잠재적 반대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래디컬 헬프는 내 성장을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깊이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타인의 고통에서는 어려운 내용 속에서 사진 이면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업무에서 연민과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일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느꼈고, 증여론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기부자에게 진정성과 투명성으로 보답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핀란트로피의 이해는 기관의 가치와 담당자의 가치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기부 계획에 앞서 동일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였습니다. 담론을 통해 고전에서 배우는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외로운 기부, 지난 10년간의 편지는 몸서리치게 화가 나고 스스로가 창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부금이라는 탈을 쓰고 개인의 욕구를 위해 철저히 기부자를 배신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책과 강의를 통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나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일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만한 재산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연대 Book's는 연대를 통해 내 생각을 넓혀 주었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책을 완독하지 못해도 아침의 일어남이 힘들 때에도 그럼에도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함께 함이 좋아서'입니다.

2021년의 탁월한 선택! 내 안의 파랑새 연대BOOKs

감 사 은 경 (김 은 경) 04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급히 소진이 오기 쉽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 아주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소진이 오는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2021년 육아와 대학원 병행이라는 큰 결심을 하며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소진이 오는 주기도 더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것은 사실 더 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평판이 좋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연대BOOKs...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참여했던 연대BOOKs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연대BOOKs는 내 안의 행복을 찾게 하는 '내 안의 파랑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의 모여 책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업무를 지지해 주는 친근한 만남. 항상 설레하며 정기모임을 기다리는 이유일 겁니다.

어느 자리에 가건 그 자리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대BOOKs는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밝으면 밝은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해 주고 함께 하게 해 줍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고 하고 싶어서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대BOOKs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밝음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BOOKs 안에서 보탬이 되고 에너지를 up 시킬 기회가 된다는 것, 연대BOOKs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된 신입회원이지만 연대BOOKs 회원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며 에너지를 준다거나, 작은 바자회로 우리의 바자회로 승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며 정말 혼자가 아닌 연대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장점이 다른 곳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보듬어 더 나은 장점으로 승화시켜 주는 곳 연대 책자...

계속해서 연대하고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 싶습니다. 연대BOOKs 회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더 많이 알고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닌 그 책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는 나의 소소한 감정과 경험들도 소중하게 보듬어 주는 연대BOOKs... 연대BOOKs는 내가 힘들 때, 내가 힘을 얻고 싶을 때, 항상 함께하고 싶은 내 안의 파랑새입니다.

연대BOOKs가 내게 던져 준 Message

05

도전태준 (김태준)

Message 1. Definition "연대BOOKs = 연대성장하는 공동체"

연: 습을 실천같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네트워크이고

대: 화를 통해 Success Point를 발견하고, 끝까지 밀어주는 '짚' 공동체이며

성: 장을 위해서라면 새벽과 야밤을 가리지 않고 생얼 투혼도 불사하는 사람들로써

장: 장을 만들자 - 연대의 가치를 살린 성장경험을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자

Message 2. 힘을 모으고, 협력하면 "We can do it"

2019년 모임송년회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나누던 중 나는 "온라인으로 자원개발 웨비나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는 순식간에 자원개발 세미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웨비나 일정은 언제가 좋을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운영할지, 누가 어떤 주제로 강의할지, 사회는 누가 볼 것인지를 정하고 헤어졌다. 그 이후 우리는 웨비나의 시각통일성을 주기 위해 PPT 디자인도 통일하고, 교육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강의 속도, 강조할 교육내용,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점검하며 온라인 자원개발 웨비나를 준비했다.

결과는 노력에 비례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을 잊지 않은가!

사회복지 분야 자원개발실무자들이 준비한 첫 웨비나이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웨비나였지만 약80명의 동료들이 참여하는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힘을 모으고, 협력하면 해 낼 수 있다는 경험했다.

Message 3. 이제는 성장경험을 공유할 때, 공유할수록 성장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고액기부 프로그램을 만든 실무자가 한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기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부제안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은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각자의 장점과 강점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연대하면서 협력하면 파워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효과적인 자원개발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한계에는 조직적인 측면으로써 자원개발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즉 조직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변화 동기는 자원개발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가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난 연대박스에서 경험한 성장공유 환경을 조직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난 한국 내 약 250개 장애인복지관 자원개발 중간관리자들에게 연락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자원개발 문화와 인프라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을 제안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112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이어서 자원개발로 사람과 사회를 이어준다는 의미 "잇다 네트워크"라는 명칭을 선정하였다.

카카오톡 단체방과 네이버 카페 채널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킹, 교육, 정보공유, 자원개발사례집 제작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대박스는 나에게서 연대를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그 경험공유를 통한 작은 성과를 맛보게 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는 연대박스와 잇다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연대가능성을 열어 갈 차례이다.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줘서 고마워!♡

06 진정명희 (어명희)

Q1. 연대BOOKs에 참여하면서 언제 성장한 나를 발견하나요?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책을 고르고 사서 읽은 게 40 평생 중 10권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요.
자원 개발 업무에 도움 될 만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 연대BOOKs, 그렇게 제가 연대BOOKs 회원이 되고 책과 함께 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연대BOOKs에 참여하며 달라진 저의 모습은 아침 출퇴근길 핸드폰 대신에 책장을 넘긴다는 것, 모임 때 나눌 저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 내 돈 내산 책이 책장에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뿐 만 아니라 연대BOOKs 식구들의 나눔과 강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삶을 충전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에너지를 다시 제 일과 삶에 나눈다는 것이 가장 큰 성장 아닐까 싶습니다.
도전하고, 즐기고, 깨우치는 인문학 열전!

이곳이 바로 연대BOOKs입니다!

Q1. 2021년 선정도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는 무엇인가요?

답론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한 평생 공부하신 3500여년의 동양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고, 성공회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와 닿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그리고 나를 포함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성찰과 사유의 힘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기덕 교수님의 인사이트 강의 속에서 신영복 선생님이 많이 생각났고, 인공지능(AI) 기술로라도 재현할 수 있다면 강의장에 모여 선생님을 실제로 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1. 연대BOOKs와 함께했던 에피소드를 나눈다면요?

올해 우리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AM 06:30 정기모임뿐만 아니라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는 글쓰기 특강.
3주간 이루어진 글쓰기 시간은 나의 삶을 솔직하게 글로 옮겨보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강사님의 피도 눈물도 없는 빨간펜 학습은 특히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강사님의 짝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에피소드 둘은 번개모임.
연대BOOKs가 온라인 독서모임이기도 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만나기 어려웠는데 번개모임을 추진해 워크숍을 진행해보았습니다. DISC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서로가 다른 유형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깔깔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행복한 시간, 역시 사람과 사람은 만나야한다는 것을 깊게 느낀 에피소드였습니다.

Q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연대BOOKs 여러분,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연대BOOKs는 단순한 온라인 독서모임이 아닙니다. 연대BOOKs에 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슬픔이 있는 곳엔 한 걸음에 다가가 함께해주고, 무엇이든 오케이 하는 관대함이 있고, 어떤 일이든 기꺼이 나서 기쁘게 하는 연대BOOKs 식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곳에 연대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연대BOOKs, 사랑합니다! ♡

깨어나는 새벽보다 잠들기 전 새벽을 더 좋아하는 올빼미 족인 나에게 새벽 6시 30분에 시작하는 책 모임은 정말 큰 도전이었다. 다른 과제로 한 달에 읽어야 될 책이 두 권 이상이 될 때면 책 두 권을 들고 씨름하기도 하고, 모임 참여 신청을 해 놓고 너무 책을 못 읽은 날에는 모임 시간 전까지 책을 읽다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이 모임이 스트레스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대BOOKs 매력에 빠져든다.

솔직하게 책도 착실하게 못 읽는 편이고, 멤버들과 관계가 깊은 편도 아니어서 겉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내 지인들에게 연대BOOKs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한 나를 발견한 일이 있었다.

겉도는 애가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다니;;; 연대BOOKs 멤버 중에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야길 들었다면 민망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흥분한 이야기 속에는 혼자서 앞을 걸어가는 선배가 아닌 후배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손 내밀어 주는 선배가 있었고, 모임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면서 힘든 내색하나 없이 우리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애정이란 마음을 가득 담아 표현해 주는 사람들, 열정과 도전이란 이런거지라며 자기 분야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다.

연대BOOKs는 책을 매개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다.

연대BOOKs 멤버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권의 책과 더불어 그 책을 더 풍성하게 나눠 줄 이야기 손님도 함께 만나게 된다. 정말 각 분야에서 내 놓으라 할 만한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이 모임에서 나는 지금, 어느 배우의 유명한 수상소감처럼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없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언젠가 설거지도 하고 밥상 차리는 보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도전, 나눔, 배려, 환대, 진심, 사람, 배움, 아낌없는... 내가 연대BOOKs를 생각할 때 드는 단어들이다.

더 풍성한 배움과 관계를 위해 나아가는 연대BOOKs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나의 연중 계획서에는 항상 한 달에 1권의 책읽기가 적혀있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 다이어트 다음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계획 중에 하나였다.

왜 안되는지 모르지만 삶이 바쁘다는 나의 생각이 합리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매달 1권의 책을 꾸준히 읽고 있다.

신기하게도 매달 1권을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이른 아침 6시 30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전문 강사를 모시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듣는다.

이 모임이 바로 연대BOOKs다. 난 여기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첫 번째, 나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 관련된 교육 즉 실무교육이 대부분이어서 복지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던 중 복지에 대한 여러 책을 읽고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업무를 보는 나의 시야가 넓어졌고, 업무에 대한 깊이 깊어져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나의 잘못(실수)을 인정하게 되었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계획이 계획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주변 환경을 탓하며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할 수 있는데 난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난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이게 완벽하지 않고, 그러니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었다.

세 번째, 소통이다. 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의 주장이 더 강한 사람이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다른 것에 대해 반박하여 내가 맞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독불장군이였다. 하지만 연대BOOKs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와 다르다 하여 반박하기 보다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의 환경과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른 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연대BOOKs와 함께한 후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르다. 나와 같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책으로 모였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연대BOOKs를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이 참 많다.

연대BOOKs를 통한 연대의 힘

09 함께 누리 (이 누리)

매월 넷째 주 새벽 6시 30분, 책을 읽고 자원 개발과 세상, 사람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연대BOOKs.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하며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쯤, 친한 사회복지 동료들 통해 연대BOOKs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대BOOKs는 책을 매개체로 자원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성장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연대BOOKs에 처음 참여할 때는 매월 책 한 권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다양한 현장의 동료, 선배님들을 화상으로나마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첫 모임 후, 마음에는 기대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임에서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사회복지 선배, 동료들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면서 ‘아 이 부분은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구나.’, ‘아직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인 강사님들이 모임에 함께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었고, 바쁜 업무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연대BOOKs를 통해 얻은 것이 또 있다면 각 분야의 열정을 가진 현장의 동료와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하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연대BOOKs가 자원 개발과 관련한 웨비나, 바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뜻깊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모임이나 활동의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온라인을 통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져온 만큼,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연대가 계속 이어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대BOOKs 이야기

비전인환 (정인환) 10

학창 시절부터 책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던 내가 책 모임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조금 어색했다. 또한, 괜히 들어가서 다른 동료들에게 폐나 끼치지 않는지 하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주민을 만나고, 또 여러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지식의 깊이와 인문학적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내가 다양한 상식에서 부족하다는 반성과 함께 용기 내어 가입하게 되었다. 물론 연대BOOKs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한다.

1년에 1~2권의 책을 읽던 사람이 매월 1권의 책을 읽고 또 그 내용에 대해 단순히 동료들과의 나눔이 아닌 때로는 책의 저자, 때로는 듣기만 해도 유명한 그런 분들과 나눈다는 것이 처음에는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왔다. 주말 이른 새벽에 일어나 2시간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또한 처음에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과 압박이 설렘과 즐거움, 또 성장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으로 바뀌는 데에는 처음 참석한 연대BOOKs 모임! 딱 한번이면 충분했다. 소감을 나누는 동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시간도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웃을 수 있었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책의 저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많이 감사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동료들과의 어떤 끈끈한 연대감과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이렇게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랍고, 감사했던 2021년으로 기억한다. 업무 시 잘 모르는 것들, 혹은 교육이나 워크숍에 대한 정보, 쉽게 얻지 못하는 연구 자료와 논문, 강사 섭외, 인생 상담 등 매월 한 권의 책 나눔 이외에도 내 업무에서 또 내 인생에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던 2021년! 하지만, 연대BOOKs를 통해 그 힘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힘들었던 그 크기 이상의 성장과 위로가 있었기에... 나에게 정말 한 줄기 빛! 생명수! 와 같았던 모임이었다. 업무 때문에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고, 또 동료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찐~~ 사랑! 연대BOOKs! 2021년에는 그저 많이 받기만 했다면.... 2022년에는 내가 가진 힘을 동료들에게 베푸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늘 200%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멋진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이 멋진 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준 중부재단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내 편 만들기

11

댄스현경 (정현경)

4차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코딩을 배운다. 기술을 배운다’ 그래야 노동력을 로봇에게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바로 어제 그런 것 같았는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우아하게 아날로그로만 일상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아니 턱도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 소통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메타버스가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새로운 운동의 하나려니 생각했는데(무식하다고 욕해도 능수능란하게 다 받아내겠다!), 온라인을 넘어 가상의 공간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급기야 땅도 사고 빌딩도 사는 세상이 되었다.

전략을 바꿔야 한다. 노동력 지키기를 운운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유능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로봇을 이길 수 없다. 이젠 눈도 나빠지고 그 총기 어린 번쩍임도 사라지니 어찌 로봇을 이길 수 있단 말이나. 고로 로봇의 성장, 가상의 세계에서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자본과 독점의 출발선에 서 있지 않은 나로서는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나가는 노력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성실함’보다, ‘개천에서 욕이 나오는 열심’보다, 개천에서 용도 살고 소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개구리도 살 수 있게 개천을 푸르게 푸르게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아~ 이 멋진 말 ‘개천을 푸르게 푸르게’는 정녕 나의 언어가 아니다. 분명 어디서 들은 것인데,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지면에서만큼은 내가 만든 것으로 하자). 누구나 살 수 있는 개천(세상), 누구나 행복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개천(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보다 독점보다 로봇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바로 내 편 이다”

그런 내 편이 바로 연대BOOKs 이다. 물론 시작은 무언가를 배우고 갈고닦아 유능하고 실력 있고 성과 높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욕심, 시간을 쪼개서 새벽부터 공부하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얻어지는 위안(아,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 욕심과 위안으로부터 나오는 약간의 안심. 그런 것이이었으리라. 어떤 맘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첫 만남에서 다들 위에서 나열한 그런 말들을 한 것 같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횡수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뾰족한 마음이 무뎠다. 아 나와 같구나. 나처럼 일하면서 힘들어하는구나, 힘든 가운데 해 왔던 애쓴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 일상에서의 일상이 지켜지는 삶에 대한 염원을 이들도 바라고 있었구나.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일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변, 밀려오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되어 자본도 없고 뺏도 없고 실력을 쌓을 여유조차 만들 수 없는 현실에서, 실력을 쌓는다고 결코 로봇을 이길 수 없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본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 바로 내 편이다.

연대BOOKs는 책을 읽는 모임이지만 그보다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 슬픔에 대한 위로가 더 빈번하다.

지식과 사고를 더하기보다는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 주는 인연이 만들어진 곳이다.

책이 주인이었으나 책은 객이 되고 내 편인 ‘사람’이 주인이 되어주었다.

아, 역시 연대BOOKs는 책 읽고 나누는 모임은 아니었나 보다.

끝까지 ‘책 제목 한 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말이다.

움직이는 동력 같은 연대BOOKs

1 2

열정계명 (최계명)

늦잠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토요일! 그리고 새벽 6시 30분.
 그 시간을 이용해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새벽 책 모임이 있다면 참여하겠는가?’라는 내 안에 질문에 나는 ‘동료들과 함께 성장을 위해서라면 새벽에도 일어나야겠다’라는 대답으로 책 모임을 위한 나만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지금의 연대BOOKs다. 동료들과 책을 매개체로 연대되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다.
 한 선배님을 찾아가 다짜고짜 이런 모임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그 선배님도 ‘열정’과 ‘파이팅’이 넘치시는 분위기에 바로 해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이 도모를 작은 모닥불에서 캠프파이어로 활활 태워주셨다.

사실 처음에 누가 토요일 새벽에 독서모임 한다고 하는데 올라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사람들이 모집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모임을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함께하자고 했던 한 선배님을 믿고 따르던 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며 지금의 초기 멤버들이 결성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잘 운영할까 싶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고민하며 구상하였다. 그러다 책 토론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많을 수 있으니 외부강사를 초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초에 나의 생각은 분기에 1번이나 혹은 어려운 책 내용 때만 불렀으면 했는데 열정 많은 선배님은 매달 강사를 초빙해 주시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날의 연대BOOKs진행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강사 초빙이 쉽지 많은 않다. 우리 모임에서 강사비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을뿐더러 초빙하고 싶은 분들과 관계가 없으면 토요일 새벽에 강의를 부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열정’많은 선배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강사를 1월부터 12월까지 초빙해 주셨다. 이게 벌써 2년째다. 이 열정 많은 선배님으로 인해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과 만나며 소통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아침 이쯤에서 연대BOOKs는 ‘온라인 독서모임’이다. 첫 시작은 2020년 4월이지만,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건 2019년 12월부터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우리의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을 때부터 온라인 모임을 준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그리고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 모임이었다면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곧 중단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대BOOKs가 시대를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다.

이 모임이 지금까지 재미있게,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료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직장이거나 같은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나는 다르게 정의하고 싶다. 움직일 동(動)에 귀울 료(聊)다. 한마디로 해석하면 ‘움직임에 힘을 받는다.’란 뜻이 된다. 움직이는 동력과 같은 연대 BOOKs 동료(動聊)가 있었기에 즐거웠다. 사실 이 모임은 제안한 건 나지만 이 모임을 만드는 건 구성원 전체다. 우리 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듯이 말이다. 손이 되어 주는 동료, 발이 되어주는 동료, 눈이 되어주는 동료, 귀가 되어주는 동료, 머리가 되어주는 동료 등 몸처럼 구성되어 있다.

가끔은 ‘연대BOOKs로 연대된 동료들과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각 몸의 기능들이 서로서로 따로 놀 때쯤 끝나지 않을까 싶다. 몸의 각 기능들이 서로를 섬긴다면 그 섬기는 열정만큼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섬기는 몸의 기능이 되어보자.

함께 연대되어 감사한 분들

댄스현경, 든솔정선, 비전인환, 멀티현기, 진정명희, 미노선영, 도전태준, 감사은경, 믿음은진, 바라보리, 불꽃민선, 산책은정, 안녕민정, 여운민지, 춘기은하, 하이예나, 함께누리, 토리선아 그리고 열정계명(나)

[세계미래보고서 2021-포스트코로나 특별판]을 읽고

13 믿음은 진(차은진)

올해는 황금빛 소를 상징하는 해이다. 나도 소띠해에 태어났다.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책읽기모임을 2021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단단한 뿌리를 세우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황소처럼 시원하게 내 삶을 활개치게 하고 싶었다.

삶의 언저리에 가로막혔던 답답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일상 속에 생각의 탈출구를 만들고 싶었다.

모임이름은 ‘연대북스BOOKs’였다. 어감이 좋았다. 우연히 모임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끌렸다.

‘트렌드는 유행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힘입니다. 트렌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사회와 함께 가고자 하는 연대입니다’

모임 리더가 써놓은 책 소개에서 모임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었다.

책을 통해 인간과 그를 둘러싼 자원,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읽고 모여 생각을 나누는 모임,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는다. 모임은 넷째 주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한 시간이었다. 노트북을 켜고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로 나뉜 화면 위에 각각 자리를 잡은 얼굴들과 마주했다.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복지관, 프리랜서, 방송국 모금담당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부스스한 털 깡눈으로 어색한 듯 입을 꼭 다물고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진행자인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선한 인상의 남자 분이 먼저 운을 떼었다.

첫모임에 참여한 방송국 모금가와 내 소개를 요청했다. 각자 하는 일과 참여계기를 간단히 말했다.

“연대북스BOOKs의 공감대가 더욱 넓어진 듯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가 제일 지긋한 듯하고 짧은 커트머리에 웃는 눈을 한 여자 분이 화답을 했다. 모임 리더로 보였다.

곧 모임이 시작되고 각자 인상 깊은 구절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참여하길 잘했다고 느꼈다.

처음부터 책 선정도 좋았고 말이다.

1월 책은 ‘세계미래보고서 2021-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이다 미래연구기구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예측한 코로나가 만든 미래의 세계에 대한 책이다.

세계미래보고서는 4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10년 후 미래를 예측해서 작성한 보고서라고 한다.

장을 계속 넘길수록 ‘미래’가 공상과학소설과 너무도 비슷하게 변해감에 소름이 돋았다.

세계에 창궐한 전염병부터 인공지능의 활용까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먼저, 미래의 핵심이 되는 혁신기술 9가지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내용이 압도적이었다.

1. 뇌와 컴퓨터간 인터페이스 : 소형의 미세 칩을 뇌에 이식해 인간은 모든 지식의 습득, 성격의 변화, 신체의 불편함 극복 등이 가능하게 된다.
2. 인공지능 :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하는 능력인 AGI 기술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자는 20년 이내에 인간과 로봇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한다.
3. 나노로봇 : 의료분야에서 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혈관으로 약물을 직접 투여하고 외과수술도 쉬워지게 된다. 디자이너 베이비-DNA가위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 매년 관련 특허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윤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냉동인간-학계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 2040년경이면 죽은 사람의 뇌를 살려내거나 인공신체에 이식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4. 마음업로딩 : 우리의 기억과 마음을 업로드하고 보존한다. 미국의 넥툰이라는 회사는 인간 두뇌속의 기억이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나를 비롯한 연대북스BOOKs모임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의 두려움, 모든 게 대체되는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걱정, 사람들은 강사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강사님은 멋쩍은 웃음으로 자신도 고민해 보았다며 대답했다.

“우선 눈을 열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협업하십시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강사님은 자료화면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놓으셨다. ‘미래의 우리 모습은 우리가 지금 연민하는 정도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연민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느냐가 결국 기술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었다.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또는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연대북스BOOKs는 그러한 면에서 참 좋은 모임이 될 것 같다.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가 많이 된다.

연대북스를 통해 달라진 나

14 바라보리 (한 보 리)

작년 우연한 기회로 연대북스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그 인연으로 올해 연대북스 신규 멤버가 되었다. 강의할 때 멤버들이 강사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북돋아주는 기운이 정말 좋았기 때문이다. 각자 편안한 공간(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만나는 이 가상 공간이 주는 느낌은 상당히 아늑했고, 동시에 참가자들이 가진 열정과 학구열로 따끈했다. 그렇게 연대북스가 뿜어내는 기운과 매력에 빠졌고 올해 1월부터 멤버로서 독서모임이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고는 하나 매달 참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여행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로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늦잠을 포기하지 못해서 모임을 놓쳤다.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겨우 맞이하는 토요일을 새벽부터 깨우는 일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을 웨비나를 함께 준비하면서 서서히 연대북스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 늦은 밤 모여서 웨비나 사전 준비를 하는 모습에 솔직히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 사람들... 토요일 새벽도 모자라서 평일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두세 시간을 내다니. 하지만 자발적으로 웨비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만큼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을 보이는 이가 없었다. 몇 차례에 걸친 열띤 사전 모임으로 조금씩 완성도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고, 겪으며 어느새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니까'하며 슬쩍 뒷걸음질 치던 내 모습은 사라졌다. 오히려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보태고 싶다'하는 연대북스 멤버다운 생각이 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독서모임에 조금 더 자주 참여하며 내게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동안 들을 기회가 없었던 멋진 분들의 강의를 토요일 새벽 집에서 라이브로 듣는 즐거움을 발견했고, 함께 참여하는 멤버 각각의 생각과 사연에도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힘들지만, 독서 모임에서 받는 좋은 기운 덕에 더 활기찬 토요일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년보다 더 많은 책을 읽게 되면서 바쁘다고 소홀히 한 책 읽기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뿌듯하다.

개인적으로는 규모가 큰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후원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마음이 조금씩 무뎠을 때도 있는데, 무자금(?)으로 분투하는 자원개발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다시금 겸손해지는 효과도 덤으로 얻곤 한다.

앞으로도 이 겸손함을 잊지 않고 연대북스 멤버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끈끈하게 연대하고 싶다.



2021년 연대북스와 함께한 우리들의 한나디!!

연대BOOKs는 만남의 광장이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장하며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해였다.

최계명

말이 실현이 되는 곳, 실현된 것을 함께 했던 곳, 그래서 찬란했던 우리의 시간들 그대들과 함께 ~

정현경

“책과 사람”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찐 사랑~ 연대BOOKs!

정인환

연대의 힘을 경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연대BOOKs.

이민지

배움과 성장이 있는 연대의 힘.

이누리

서로의 다름이 “책”이라는 하나의 공통 주제로 하나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어 또다른 하나가 되는 연대BOOKs가 참~ 좋습니다

엄선영

연대BOOKs,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어명희

책은 매개일뿐~ 책을 함께 나누는 사람과 이야기로 나눔이 풍성한 곳! 연대BOOKs.

박은하



무엇이든지 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고
함께 해주실 분이 있어
감사한 연대BOOKs

김태준

BOOK(책)과 새벽!
강의와 연대는
정일품~ 어울림이었어요!

구선아

연대와 아낌없는 나눔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강예나

책을 통한 성장,
사람을 통한 배움,
연대BOOKs라서 가능.

김은경

책과 삶을 나누며
연대하는 즐거움.

한보리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연대를
이루는 모임.

차은진

연대BOOKs라는
울타리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이끌어 주는
연대의 힘! 이끌어 주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권현기

슬픔, 기쁨, 행복, 우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곳!
행복은 배가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마법같은 곳!
연대북스는 숨이다.

이정선



한
뽀뽀
성장과 연대

| 발행일 | 2021. 12. 3.

| 발행처 | 연대BOOKs

| 편집자 | 최계명, 엄선영, 어명희, 이정선

| 문의 | hateam1004@naver.com

| 디자인 | 1117디자인

책 과 사 람 과 함 께 한
연 대 B O O K s 이 야 기



한
뻬
성장과 연대

 중부재단 연대BOOKs

이 책자는 중부재단 "이:룸(E:Room)"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